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인구전략분석과 백기홍 분석관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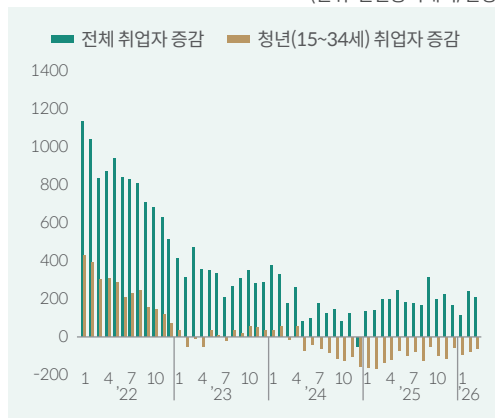
- 첫 일자리는 첫 취업 경험을 넘어 이후 경력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
 - OECD(2010)¹⁾와 Ryan(2001)²⁾ 등은 초기 취업 경험이 이후 근로 생활을 좌우하는 핵심단계로서, 초기의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 경험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낙인효과, scarring effect)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함
 - 청년 노동시장 문제는 양적인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첫 직장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얼마나 유지하며, 이탈 이후 어떤 경로로 가는 지 봐야할 필요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청년층 초기 경력 현황을 분석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 최근 양호한 노동시장 지표 속 청년층(15~34세)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부진
 - 최근 전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 전반은 양호한 모습이나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 청년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3월 실업률은 6.1%로 2021년 이후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 취업자 수 증가가 주로 고령층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거시 노동지표의 흐름과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청년층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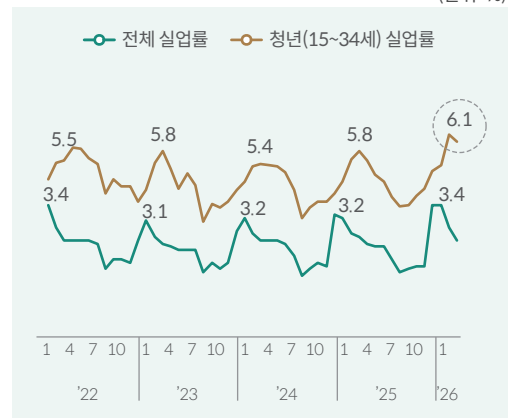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천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 OECD,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2010.
 2) Paul Rya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1): 34-92, 2001.

이 보고서는 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조정협의회에서 선정된 2026년 5월 공동연구주제 “노동절”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내용을 각 소속기관별로 기획·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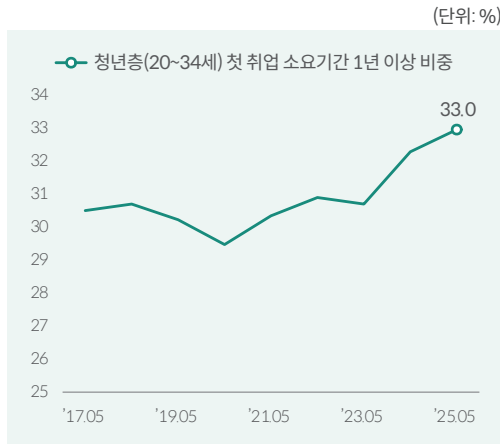


높아진 진입 장벽

▪ 청년층의 졸업 후 첫 취업(임금근로자)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첫 직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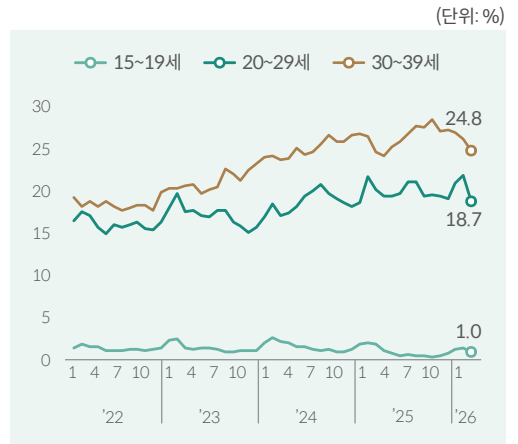
- 기업의 채용 구조가 신입 중심에서 경력직 또는 중고신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³⁾ 하면서, 청년층의 첫 직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채용방식도 정기공채 중심에서 수시·직무 중심으로 채용 구조가 변화⁴⁾
- 구직기간 장기화와 함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쉬었음' 청년의 비중도 증가
 - 2025년 기준 15~29세 청년의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음'(34.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진입 가능한 일자리 간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림 3]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청년층 쉬었음 인구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첫 직장 근속기간

▪ 첫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 중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반 수준으로 짧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은 감소한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증가하며 내부적으로는 상이한 재직 패턴이 함께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약 70%는 첫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평균 근속 기간은 18.4개월로 나타남
 - 초기 경력 단계에서는 평균 값보다도 내부 분포와 이질적 경로를 함께 살펴볼 필요

[표 1] 청년(15~34세) 첫 직장 근속기간

연도	인원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 (단위: 천명, %, 개월)		
		그만둔 경우	계속 다니는 경우	평균 근속 기간		계속 다니는 경우
				그만둔 경우	계속 다니는 경우	
2023.5	6,996	5,057 (72.3)	1,939 (27.7)	25.5	19.2	42.0
2024.5	6,893	4,922 (71.4)	1,971 (28.6)	26.0	18.9	44.0
2025.5	6,816	4,817 (70.7)	1,998 (29.3)	26.1	18.4	44.7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각 연도

3)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기업회원 인사 담당자 6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HR 시장의 주요 이슈를 조사한 결과 '더 강화된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이 1위(33.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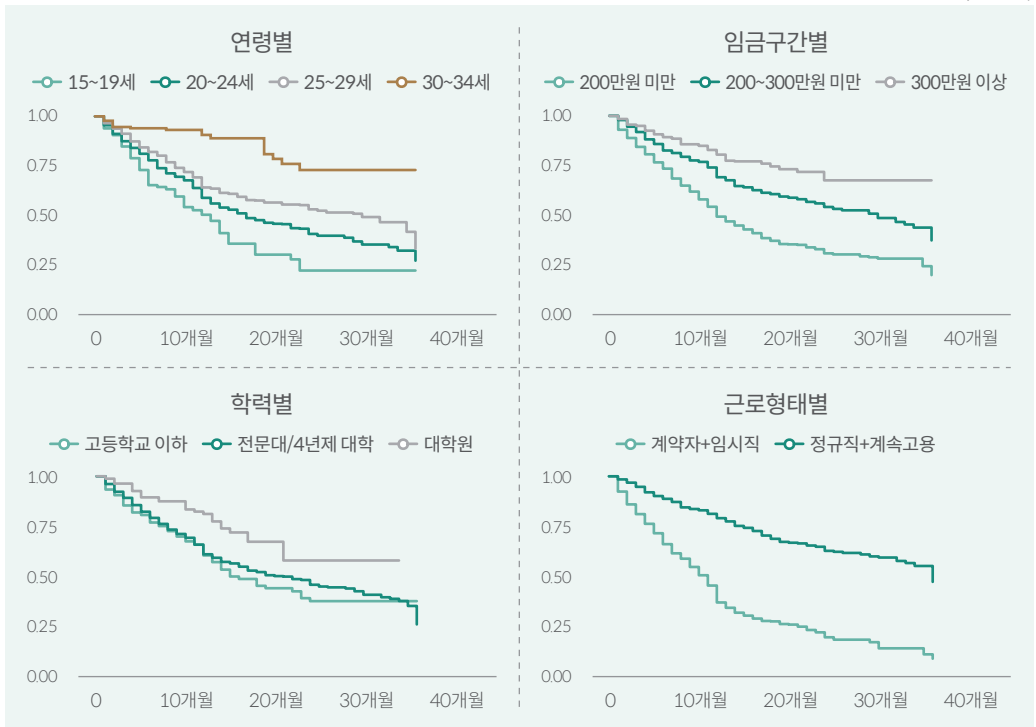
4)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26년 신규채용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시채용만 실시'가 54.8%로 가장 높았으며, '정기공채와 수시채용 병행'(35.0%), '정기공채만 실시'(10.2%) 순으로 나타남

▪ 첫 직장 재직 유지 확률⁵⁾은 초기에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이탈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에는 노동시장의 진입 시점, 구직 준비 정도, 근로형태, 직무 적합성, 경력 탐색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⁶⁾
- 특히 임금 구간 간 재직유지 확률의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 윤윤규·최형재(2020)는 1년간 직장을 유지하면 이후 계속 근무할 확률이 높으며, 직장유지율이 높은 일자리가 대체로 더 양호한 임금·고용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⁷⁾

[그림 5] 첫 직장 유지 확률

(단위: %)



주: 연령별은 첫 직장 입사 시점 기준 연령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첫 직장 이후 경로

▪ 첫 직장 이탈 이후 재취업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반면, 미취업자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 기간은 장기화되며 분화되는 양상

- 첫 직장 퇴사 후 현재 재취업자(임금근로자)는 61%이며, 현 직장까지 5개월 소요
- 현재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미취업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 비중은 43.5%, 6개월~1년 미만 26.5%, 1년 이상 30%
 - 반면 과거 청년과 비교⁸⁾하면 최근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중이 증가하였음

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2025년 5월)를 활용하여 졸업/중퇴/수료 후 최근 3년(2022년 5월 이후) 첫 직장(임금근로자)에 입직한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첫 직장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까지의 기간을 Kaplan-Meier 생존함수로 재직 유지 확률을 추정하였으며 조사시점 현재 첫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는 우측 검열로 처리함

6) 첫 직장을 그만둔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일자리 관련 사유(근로여건 불만족, 직무·적성 불일치, 전망 부족)가 57.6%로 가장 많고, 개인·가족 관련 사유 13.3%, 비자발적 사유 27.4%로 나타남

7) 윤윤규·최형재, “청년유인형 일자리 특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20.

8) 2019년 5월 조사를 기준으로 졸업/중퇴/수료 후 최근 3년(2016년 5월 이후) 첫 직장(임금근로자)에 입직한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시점간 비교

- 즉,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며 이후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남
- 이재호(2026)⁹⁾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이 감소하며, 미취업 기간 1년 증가 시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표 2] 최근 3년 내 첫 직장 퇴사 후 경로

(단위: %)

	재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미취업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2019년 조사	59.3	13.1	27.6	52.3	25.1	22.6
2025년 조사	61.0	11.4	27.6	43.5	26.5	30.0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각 연도

▪ 첫 직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이후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 경로에 차이가 나타남

- 취업자 중 계약직 또는 임시직 출발 청년의 34.5%는 현 직장도 계약직인 반면, 정규직 또는 계속고용 출발 청년의 현 직장이 계약직인 비중은 약 절반 수준인 18.7%
- 또한 계약직 또는 임시직 출발 청년의 현재 미취업자는 42.1%(실업자 12.3%, 비경제활동인구 29.8%)이며, 정규직 또는 계속고용의 경우에는 34.0%(실업자 9.9%, 비경제활동인구 24.1%)로 나타남

[표 3] 첫 직장 고용형태에 따른 현재 상태

(단위: %)

첫 직장 고용형태	취업자	계약직	정규직 + 계속고용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계약직 + 임시직	57.9	34.5	65.5	12.3	29.8
정규직 + 계속고용	66.0	18.7	81.3	9.9	24.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시사점

▪ 청년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함께, 경력초기 매칭의 질과 이탈 이후 원활한 재진입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

- 수시·경력직 채용 중심으로 전환된 노동시장에서 매칭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 탐색 지원 필요
- 첫 직장이 이후 경력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경력 단계에서 숙련 및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
 - 저임금 구간에서의 조기 이탈과 이탈 이후 일부 미취업 기간 장기화가 관찰됨
 - 또한 첫 직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이후 경로에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초기 고용형태가 이후 안정적 정착이나 경력 전환의 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
- 장기 미취업 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미취업 기간 장기화는 향후 안정적 고용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취업으로의 이행을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

9) 이재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한국은행 BOK이슈노트, 2026.